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KNN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05.27(수)	KNN 대회의실	7명 /13명	7	0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의구, 이준홍, 강문기, 복성경,
송연익, 이철희, 임수정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이오상(대표이사), 김호진(경영본부장), 추종탁(뉴미디어제작본부장),
김성기(보도국장), 국주호(영상제작국장), 허민경(제작국장),
이근호(편성라디오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2	0	4	0	0	6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6	0	0	6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기타	[해양수도권연합 출범식]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한 정부의 정책과 해양 수도권 포럼의 주제가 거의 동일하며 부산은 해양의 수도로 울산, 경남, 여수까지 뮅쳐 남해안 해양 수도권의 발전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림.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며 남부권 해양 수도권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대대적으로 출범하는 자리였으며 꼼꼼한 준비 과정들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큐멘터리, 해양 수도권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모 행사를 만들어 해양 수산부 부산 이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역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6.5월
교양	[특 앤 썰- 북구갑 보궐선거 특집] 단순한 후보 소개를 넘어 각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캐릭터, 지역 민심, 미래 비전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지역 정치 프로그램으로서 완성도가 높았다고 봄.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진영 대립 이슈 비중이 커지면서 정작 북구 주민들을 위한 교통, 상권, 청년 유출, 교육 의료, 재개발 등의 정책 검증이 부족해 아쉬웠음. 후보 간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고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무래도 입체적인 판단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음. 향후 세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 형식을 도입하면 좋겠음.	공약에 대한 점검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강화해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남은 선거 기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26.5월
기타	[센텀 맥주 축제] 작년에는 관람의 느낌,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었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까지 거의 퇴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렬한 부산의 축제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 좋았음.	부산에 정말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많은 청년들이 축제, 이벤트, 문화행사 등을 즐기러 부산을 찾게 됨. 총돌 사고나 안전 사고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현장을 보면서 지치고 힘든 지역 청년들과 타 지역 청년들에게 섬의 장소, 대중적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6.5월
기타	[뉴미디어] 0튜브 채널 '조기자의 진짜다'는 보도국에서 1인으로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갔음. 대표적으로 북구 갑 3명의 후보의 경력과 출마의 변, 주요 공약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제작됐었는데 똑같이 5분 정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이를 다시 짧은 쇼츠 형식으로 재가공 한 점도 좋았음. 뉴스나 정규 편성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재미있으면서 정보가 되게끔 가미해서 전달하여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좋은 칭찬 감사하며, 현재 선거철로 인하여 선거 위주의 영상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영상을 제작하겠음.	'26.5월

기타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100만 명을 넘어 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부산 전통을 외국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부산 전통 문화 공연을 많이 소개해주고 보도해주면 좋겠음. ※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 '생생 TV 투데이 - 바닷마을 유학일기' 코너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부산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임. 기장 미역으로 만든 커스터드가 들어간 빵, 로컬 빵집이 다수 자리 잡아 불리는 빵천동, 영도의 해산물들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부산을 소개하도록 하겠음.	'26.5월
교양	[공개클리닉 웹- 빠른 판단이 뇌를 살립니다. 뇌졸중 최신 치료법 편]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뇌졸중의 개념과 증상, 원인, 최신 치료법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는 내내 지루함이 없었음.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 뇌졸중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더 심각하게 일깨워준 점도 돋보였음. 요즘 의학 프로그램을 보면 3D 입체 화면이 다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쉽게 보여줌. 그런데 이번 편은 평면적으로 되어있고 글자도 작아서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음. 뇌 구조를 3D 입체로 스캔해 어디가 막히고, 어떻게 약이 들어가 혈전을 제거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더라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임.	실제 환자 사례를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작함. 이번 편도 녹화 후 2주 동안 환자를 기다려 촬영을 했음. 현장 촬영에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 CG 퀄리티 부분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음. 현재 시 등 새로운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	'26.5월
총 건수		6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6.5~2026.5)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태훈	2006.09.08	대학생	임기만료	1달
박수민	2006.05.28	대학생	임기만료	1달
채명진	2006.09.24	대학생	임기만료	1달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전문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성별/생년 (총선임기간)
위원장	강의구	(현)부산영사단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경제단체	남/1946 (20.03.01.~27.03.26)
부위원장	이준홍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	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단체	남/1965 (22.01.01.~27.03.26)
위원	강문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65 (25.03.26~27.03.26)
위원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학부모단체	남/1967 (23.01.01.~27.03.26)
위원	김덕열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부산방송영상포럼	청소년 단체	남/1980 (25.03.26~27.03.26)
위원	김정환	부산 YWCA 사무총장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64 (25.03.26~27.03.26)
위원	김흥준	(주)무지개약품 대표이사	부산울산경남 의약품유통협회	경제단체	남/1987 (25.03.26~27.03.26)
위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71 (25.03.26~27.03.26)
위원	송수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모단체	여/1990 (25.03.26~27.03.26)
위원	송연익	(주)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남/1969 (23.01.01.~27.03.26)
위원	이덕환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74 (25.03.26~27.03.26)
위원	이철희	단디병원 병원장	양산시의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78 (22.01.01.~27.03.26)
위원	임수정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조직위원	(사)자연의 권리찾기	소비자보호단체	여/1973 (23.01.01.~27.03.26)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해양수도권연합 출범식]</p> <p>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한 정부의 정책과 해양 수도권 포럼의 주제가 거의 동일하며 부산은 해양의 수도로 울산, 경남, 여수까지 뭉쳐 남해안 해양 수도권의 발전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p>	<p>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며 남부권 해양 수도권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대대적으로 출범하는 자리였으며 꼼꼼한 준비 과정들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p> <p>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큐멘터리, 해양 수도권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모 행사를 만들어 해양 수산부 부산 이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역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		
교양	<p>[특 앤 썰- 북구갑 보궐선거 특집]</p> <p>단순한 후보 소개를 넘어 각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캐릭터, 지역 민심, 미래 비전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지역 정치 프로그램으로서 완성도가 높았다고 봄.</p> <p>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진영 대립 이슈 비중이 커지면서 정작 북구 주민들을 위한 교통, 상권, 청년 유출, 교육 의료, 재개발 등의 정책 검증이 부족해 아쉬웠음.</p> <p>후보 간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고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무래도 입체적인 판단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음.</p> <p>향후 세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 형식을 도입하면 좋겠음.</p>	<p>공약에 대한 점검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강화해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음.</p> <p>남은 선거 기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p>	○		
기타	<p>[센텀 맥주 축제]</p> <p>작년에는 관람의 느낌,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었음.</p> <p>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까지 거의 퇴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렬한 부산의 축제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 좋았음.</p>	<p>부산에 정말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많은 청년들이 축제, 이벤트, 문화행사 등을 즐기러 부산을 찾게 됨.</p> <p>충돌 사고나 안전 사고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축제를 즐기는 현장을 보면서 지치고 힘든 지역 청년들과 타 지역 청년들에게 섬의 장소, 대중적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음.</p>	○		
기타	<p>[뉴미디어]</p> <p>0튜브 채널 '조기자의 진짜다'는 보도국에서 1인으로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갔음.</p> <p>대표적으로 북구 갑 3명의 후보의 경력과 출마의 변, 주요 공약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제작됐었는데 똑같이 5분 정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이를 다시 짧은 쇼츠 형식으로 재가공한 점도 좋았음.</p> <p>뉴스나 정규 편성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재미있으면서 정보가 되게끔 가미해서 전달하여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p>	<p>좋은 칭찬 감사하며, 현재 선거철로 인하여 선거 위주의 영상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영상을 제작하겠음.</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100만 명을 넘어 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p> <p>부산 전통을 외국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부산 전통 문화 공연을 많이 소개해주고 보도해주면 좋겠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 '생생 TV 투데이 - 바닷마을 유학일기' 코너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부산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임.</p> <p>기장 미역으로 만든 커스터드가 들어간 빵, 로컬 빵집이 다수 자리 잡아 불리는 빵천동, 영도의 해산물들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부산을 소개하도록 하겠음.</p>	○		
교양	<p>[공개클리닉 웹- 빠른 판단이 뇌를 살립니다. 뇌졸중 최신 치료법 편]</p> <p>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뇌졸중의 개념과 증상, 원인, 최신 치료법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는 내내 지루함이 없었음.</p> <p>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 뇌졸중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더 심각하게 일깨워준 점도 돋보였음.</p> <p>요즘 의학 프로그램을 보면 3D 입체 화면이 다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쉽게 보여줌. 그런데 이번 편은 평면적으로 되어있고 글자도 작아서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음.</p> <p>뇌 구조를 3D 입체로 스캔해 어디가 막히고, 어떻게 약이 들어가 혈전을 제거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더라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임.</p>	<p>실제 환자 사례를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작함.</p> <p>이번 편도 녹화 후 2주 동안 환자를 기다려 촬영을 했음.</p> <p>현장 촬영에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 CG 퀄리티 부분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음.</p> <p>현재 AI 등 새로운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p>	○		